

## 2024 인천국제해양포럼, 해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한다.

-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을 주제로 해운·물류, 스마트 항만, 항만 에너지 등 분야별 현황과 미래 발전방향 모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인천광역시, 인천항만공사, 연합뉴스와 공동으로 7월 4일(목)부터 7월 5일(금)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Incheon International Ocean Forum 2024)’을 개최한다.

‘인천국제해양포럼’은 해양 분야의 전문가, 기업인들이 해양산업·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2020년부터 개최되었다.

5회째를 맞이한 올해 포럼에서는 ‘오늘의 바다, 미래의 해양’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5개 정규세션, 1개 특별세션 등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기조강연에서는 「충, 균, 쇠」의 저자인 ‘재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가 온라인을 통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바다’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해운물류-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탐색, ▲스마트항만-기술혁신과 차세대 스마트항만, ▲항만에너지-친환경 시대의 선박연료와 항만에너지 공급, ▲해양관광-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 ▲해양환경과 기후-역동적인 기후에 반응하는 해양 탐사 등 정규 세션과 함께,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한 국내 수출증고차 산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블록화와 공급망 불안, 기술 변혁과 탄소중립 전환 등 대내외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인천국제해양포럼이 우리 해양산업이 마주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올바른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길 (044-200-5220)
	해양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고규환 (044-200-5221)



## 참고 2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세부일정

소요시간			세부내용	
7.4 (목)	10:00~10:30	30'	등록	
	10:30~11:00	30'	개회식(개회사, 축사, 환영사)	
	11:00~12:00	60'	기조연설(재레드 다이아몬드)	
	12:00~13:00	60'	오찬	
	13:00~15:10	130'	[세션1] 해운물류 -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탐색	[세션3] 항만 에너지 - 친환경 시대의 선박연료와 항만 에너지 공급
	15:10~15:20	10'	휴식	
7.5 (금)	15:20~17:30	130'	[세션2] 스마트 항만 - 기술혁신과 차세대 스마트항만	[특별세션] - 인천 물동량을 극복하는 국내 수출중고차 산업 현황과 개선방안
	09:00~09:30	30'	등록	
7.5 (금)	09:30~11:40	130'	[세션4] 해양관광 - 동북아 크루즈 산업의 새로운 도약: 혁신과 협력 - 다모향체인크루징	[세션5] 해양환경과 기후 - 변화의 바다: 역동적인 기후에 반응하는 해양 탐사

## 참고 3 제4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진



< 개막식 기념촬영 >



< 오프닝 세레머니(LED볼 거치) >